

'98. 8

전주권신공항건설김제백산면중축장부지설치반대결의문

김 제 시 의 회

# 전주권신공항김제백산면종축장부지설지반대결의문

의안 번호	98-71
----------	-------

1998. 8. .

## □ 제 안 이 유

- 전라북도에서 전주권 신공항 건설사업 부지를 김제시 백산면 종축장 부지로 잠정 발표한바, 다가오는 21C를 대비하여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전주권 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동 건설부지를 4개 후보지 가운데 전주권에서 접근성이 가장 불리한 김제시 백산면 종축장 부지로 선정하는 것은 납득할수 없으며, 전주권 공항이 백산면에 건설된다면 우리 김제시는 물론, 전라북도 발전의 걸림돌이 될것이 명백하므로 동 건설계획 백지화 및 다른지역으로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의회 차원의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함

## □ 주 요 곱 자

- 김제시 백산면 종축장 일대는 『김제지방공단』, 『김제온천개발』, 『노인 종합복지타운』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중심지로서 전주권 신공항 건설 부지로서는 부적정함
- 전주권 신공항을 동 부지에 건설할시는 초·중·대학교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크게 해치는바, 건설부지 선정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검토 촉구
- 신공항 건설시 소음과 대기오염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는바, 이는 21C 환경친화적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김제시의 환경정책에도 역행
- 신공항 건설로 세수증대 및 지역 주민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긍정적인 면보다도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제약, 지가하락, 지역 농축산업의 붕괴가 우려되는바, 금후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례에 책임 촉구

# 전주권신공항건설김제백산면중축장부지설치반대결의문

우리 전라북도는 과거 중앙 정부의 지역 불균형 성장 정책에 따라 지역개발에서 소외되었으나,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300만 전북도민은 지역 개발에 대한 열화와 같은 의지로 2002년 월드컵의 전북 유치는 물론,

다가오는 21C 환황해 경제권 시대에 부응하여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전북 발전의 거점사업인 새만금 종합개발 사업, 용담댐 건설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북 발전 추세에 부응하여 그동안 300만 도민과 전주 시민 숙원사업의 해결 및 우리 전라북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전주권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에는 도민 모두가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지난 96년부터 2개년에 걸쳐서 전주권 신공항 건설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면서 관계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용지매수의 용이성, 공사비 저렴 등 편의적 발상으로 동 건설 부지를 김제시 백산면 일대로 잠정 발표한 것은

상호평등과 호혜의 원칙인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이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과거 권위주의적 구태를 아직도 답습하고 있는데 대하여 분노를 금할수 없으며, 이는 명백히 13만 김제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생각할수 없다.

따라서 우리 김제시 의원 일동은 전라북도가 96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해온 전주권 신공항 건설에 따른 용역결과를 공개하여 건설 부지 선정에 따른 의혹을 소상히 밝히고, 김제시의 장기 발전계획을 고려하는 등 타당성 조사를 다시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특히 김제시 백산면 종축장 일대는 「김제지방공단」, 「김제온천개발」, 「노인종합복지타운」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김제시 개발의 중심지로서 전주권 신공항 건설부지로서는 부적절하며,

공항건설에 따른 실익보다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 지가하락, 소음공해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며,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이 우려되는 등 득보다 실이 많은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바,

이에 우리 김제시 의원 일동은 전주권 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금번 전라북도의 전주권 공항 건설부지의 백산면 일대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다른 지역으로 재조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김제시 백산면 일대는 「김제지방공단」, 「김제온천개발」, 「노인종합복지타운」 등 김제발전의 핵을 이루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개발의 중심지로서 전주권 신공항이 건설된다면 김제시가 추진중인 중요사업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한바,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전주권 신공항 건설이 불가능한 지역임을 명백히 밝혀둔다.
  
2. 김제시 백산면 종축장 일대의 동부지역 4개면 (백산, 용지, 백구, 공덕)은 그 어느 지역보다 초·중등 및 대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일부 학교는 이전이 불가피하고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바 전주권 신공항 건설부지 선정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김제시 백산면 일대는 전형적인 전원 농촌으로서 주거환경이 어느 지역보다 깨끗한 고장으로 신공항 건설시 소음과 대기오염등으로 인한 13만 김제시민의 직·간접적인 피해는 물론,
 

특히 만경, 백산, 용지, 백구, 공덕, 청하 등 6개면 ( 10,378세대, 33,530여명 ) 주민들의 정서장애와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는바, 이는 21C 환경친화적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김제시의 환경정책에도 역행하고 있는 처사이다.

4. 신공항 건설로 세수증대 및 지역주민의 고용창출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이에 따르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 지가 하락은 물론,

전라북도 축산의 23%를 점유하고 있는 지역 축산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것이며, 종축장 부지와 인접한 6개면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소, 돼지, 닭 등 주요 가축의 기형 가축 출산이 예상되며, 산란률, 임신률의 격감으로 인해 5,000여 축산농가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지역축산업 기반이 붕괴되는 등

지역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바, 금후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라북도에 있음을 명백히 밝혀두는 바이다.

1998년 9월 일

김제시 의회 의원 일동